

LG전자-LGU+, KT 주도 AI원팀 합류... “곳곳서 시너지”

대한민국 AI 1등 국가 위한 MOU
기술·경험 공유 등 AI 경쟁력 제고
ICT·로봇 등 다양한 산업 역량 강화

LG전자와 이동통신사 KT,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손잡았다.

이들 3사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월 출범한 AI원팀은 국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연 협의체다. KT를 비롯해 현대중공업지주, 카이스트, 한양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LG전자와 LG유플러스는 AI원팀에 참여해 ▲AI 역량 기반 사회적 이슈 해결 기여 ▲보유기술 및 경험 공유를 통한 AI 역량 강화 ▲제품,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AI 경쟁력 향상을 통



3일 KT 광화문빌딩에서 열린 ‘대한민국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 LG전자 CTO 박일평 사장, KT AI/DX융합사업부부장 전홍범 부사장, LG유플러스 FC부부장 이상민 부사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T

한 사업성과 창출 ▲산학연을 연결하는 AI 인재양성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한다.

우선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KT의 통신 데이터와 감염병 확산방지 노하우에 LG유플러스의 통신 및 로밍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LG전자 제품과 AI 기술력을 결합해 새로운 관점에서 감염병 확산과 위험을 방지하는 모델도 시도해 보기로 했다. AI 원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외에도 환경오염, 산업안전 등 사회문제 해결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AI원팀은 KT, 현대중공업그룹에 LG전자, LG유플러스가 합류하면서 정

보통신기술(ICT), 스마트선박, 제조, 로봇에 이어 스마트가전, 스마트기기 등 보다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AI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LG전자의 경우 서울을 비롯해 실리콘밸리(미국), 토론토(캐나다) 등 전세계 5개 지역에 AI 연구개발 거점을 두고 딥러닝, 알고리즘, 강화학습, 에지컴퓨팅, 데이터분석 등 다양한 AI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만큼 AI 원팀의 시너지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서비스, 솔루션 분야의 AI 경쟁력 향상 및 사업적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KT AI 플랫폼 ‘가가지니’와 LG전자 ‘LG 씽큐’의 상호연동, 대화 확대 등 시너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KT와 LG유플러스의 홈IoT 서비스와 LG전자 가전을 연동해 스마트홈을 진화시킨다는 목표다.

이와 함께 AI 원팀은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인재양성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산업 실무형 AI 교육’ 및 ‘AI 전문

인력 육성’에 함께 참여해 AI 인재가 산업 전반에 골고루 활동하는 토대를 만들 계획이다.

박일평 LG전자 CTO 사장은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 대학, 연구소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해 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창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LG유플러스 FC부부장 부사장은 “국내 AI 기술 경쟁력 제고와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기존의 틀을 깨는 과감한 협력에 나선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 AI 협력 방안 논의를 시작으로 체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공지능 신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홍범 KT AI·DX사업부부장 부사장은 “KT는 AI 원팀과 함께 AI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이슈 해결, 그리고 국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베일 벗은 신형 싼타페... 정체성 살리고 고급화

현대차 ‘더 뉴 싼타페’ 디자인 공개
전면 ‘센슈어스 스포티니스’ 적용

현대자동차가 3일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더 뉴 싼타페’의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2018년 출시한 4세대 싼타페의 부분변경 모델로 이달 중 출시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싼타페는 전면부를 현대차 디자인 정체성 ‘센슈어스 스포티니스’를 적용하며 완벽한 변화를 줬다. 라디에이터그릴은 이전 모델보다 가로로 길게 늘었다. 영문 ‘T’자 형태의 주간주행등은 라디에이터그릴 좌우측에 붙은 헤드램프와 연결했다.

더 뉴 싼타페의 내장은 고급감과 직관성을 높인 사용자 중심의 구조로 디



현대차 더 뉴 싼타페 외장.

자인됐다. 높아진 센터 콘솔은 문에서부터 크래시 패드까지 하나로 이어지며 운전자를 감싸는 듯이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하단에는 추가적인 수납 공간을 제공해 실용성을 더한다. 실내는 전

체적으로 대형 SUV 팰리세이드와 비슷하다.

싼타페는 이 달 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언박싱’ 행사를 통해 출시된다. /양성운 기자 ysw@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4·A5’ 국내 출시

출시 행사 유튜브 등 온라인 진행

아우디가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 ‘더 뉴 아우디 A4’와 디자인과 편의성, 실용성을 더한 ‘더 뉴 아우디 A5’의 한국 출시를 알렸다.

아우디는 3일 오후 7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 제한된 장소에서 진행했던 출시 행사의 틀에서 벗어난 온라인 론칭을 진행했다.

이날 공개된 ‘더 뉴 아우디 A4’는 5세대 부분변경 모델로 스포티하고 다이내믹한 아우디의 새로운 디자인 콘셉트를 적용했으며 2종의 TFSI 가솔린 엔진 모델과 2종의 TDI 디젤 엔진 모델로 총 4가지 모델로 출시된다.

쿠페의 다이내믹함과 아반트의 실용성, 세단의 편안함을 모두 갖춘 ‘아우디 A5’의 2세대 부분변경 모델인 ‘더 뉴 아우디 A5’ 또한 스포츠백, 쿠페, 카브리올레 등 새로운 디자인 요소를 적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4’



아우디 ‘더 뉴 아우디 A5’

용한 다양한 라인업으로 새롭게 선보인다.

‘더 뉴 아우디 A5’는 3종의 가솔린 엔진 모델과 1종의 디젤 엔진 모델, 콘셉트에 따라 스포츠백, 쿠페, 카브리올레로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SKT, 신입사원 채용면접에 비대면그룹 방식 도입

자체 개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
면접 필요한 기기·데이터 지원

SK텔레콤이 언택트 시대 새로운 면접 방식으로 채용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대기업 신입사원 정기 채용 최초로 비대면 그룹 소통 방식인 ‘인:택트(Interactive Untact)’ 면접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면접자들이 동일한 환경에서 공정하게 면접을 볼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하는 한편, 면접에 필요한 태블릿PC와 태블릿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해 다자간 상호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면접 방식의 ‘인:택트 언택트(인택트)’를 선보일 예정



SK텔레콤이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활용해 풀HD급 화질로 그룹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

이다. 현재 대부분의 언택트 면접은 HD급 화질로 1:1 질의 응답형식의 면접으로 진행 중이다. SKT가 자체 개발한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은 풀 고화질(HD)급 화질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온라인 개학을 맞아 당초 하반기 출시 예정이었던 그룹 영상통화 솔루션을 원격 교육용으로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 면접에서는 해당 서비스의 일부 기능을 보완해 인택트 면접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SK텔레콤은 면접자들에게 동일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상통화용 태블릿, 면접 자료용 태블릿, 거치대, 가이드북 등의 면접 용품들로 구성된 ‘인택트 면접 키트’를 면접자의 집 주소로 배송한다. 지원자들은 약 일주일 전에 면접 키트를 받아보고, 면접 전에 접속 환경 등의 테스트를 2회 진행하게 된다.

원활한 면접 환경을 위해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환경에 따라 데이터 끊김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면접자에게 제공되는 태블릿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의 SIM카드를 장착해 발송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KT, ‘K-드론시스템’ 기술 시연 진행

저고도 안전 비행가능한 관제 솔루션

KT는 강원도 영월 ‘드론 전용 비행 시험장’에서 ‘저고도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UTM)’인 ‘K-드론시스템’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술 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국도교통부 주관으로 개최된 시연 행사는 KT 외에도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같은 정부기관과 블루젠드론, 유콘시스템, 메타빌드 등 다수의 드론 제조사가 참여했다.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드론의 위치를 확인하고 비행 일정과 경로를 사전에 분석해 이륙을

허가 하는 등 저고도(150m 이하)에서 드론이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관제 솔루션이다.

이 시스템은 KT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무인비행장치의 안정 운영을 위한 저고도 교통관리 체계 개발 및 실증시험 사업’에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개발했다.

KT는 이날 시연에서 배송, 방제, 측량 등 각각의 미션을 부여 받은 6개의 드론이 무인비행장치 교통관리 시스템을 이용해 목적지로 이륙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 미션을 완수하고 착륙을 승인 받는 전체 과정을 안정적으로 선보였다. /김나인 기자